

윤회는 '시간·존재' 본질 푸는 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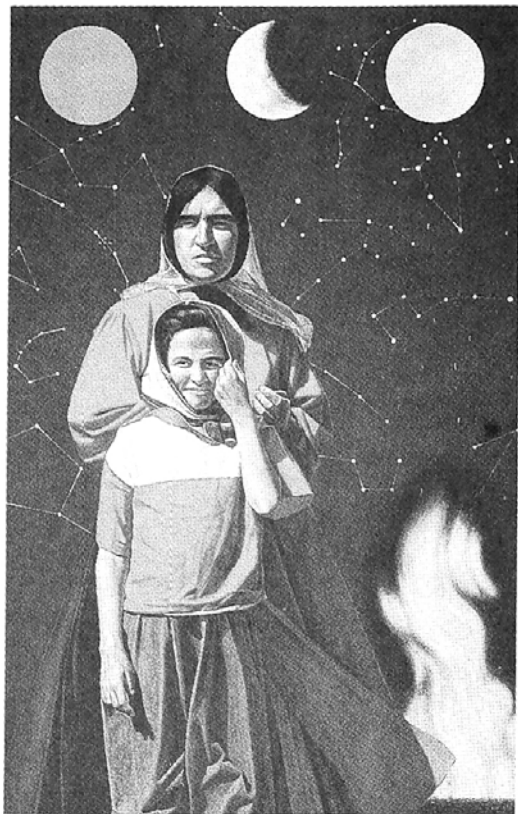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윤 회 ⑥

윤회라는 주제는 한편 인도인들의 시간관(時間觀)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보르헤스도 윤회를 시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이 찾아낸 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죽음'이며, 죽음은 인간에게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한 철학자가 평생을 바쳐 각고의 사색과 연구 끝에 철학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학설을 정립했다 하더라도, 시간의 근본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보르헤스는 말하기를 많은 작가들이 생(生)이라는 수수께끼를 마주해 그것을 풀기 위하여 노력하면 결국 시간이란 문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모든 정신적 체험은 시간체현으로 환원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로 볼 수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永遠)도 그 해결책 중의 하나이다.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문제를 풀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의 해결책도 재미있다. 그는 시간의 문제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인 영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데아론(論)에 따라 먼저 영원한 존재를 상정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는 타존재들에게 자신을 투영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신의 영원 속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타존재들은 하나씩 하나씩 연속적으로 투영되는 사물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 속에선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의 움직이는 영상이라 불렀다.



◇ 보르헤스는 인간에게 있어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 중의 하나인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윤회 사상이 등장했다고 보았다. 사지는 이종구씨의 실크로드 기행작 '영원의 빛 - 슈타즈 유목민'.

'바로 지금' 인식 삼세로 통해...미래확신 현재에 반영 시간은 幻에 불과...禪은 시공 넘나드는 정신체험

인간과 세계의 근본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학문을 흔히 형이상학(形而上學)이라고 한다. 베르그송이 형이상학의 핵심문제는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더 나아가 시간인식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체험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인간이 헛바퀴처럼 흘러가는 일상(日常)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금 여기'를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가. '오늘'은 '오!-늘(常)인 것이다. 그 경험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성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시간은 순환하는 圓形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내 이름이 갑들이인지 새삼 되돌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모든 것은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와 진다. 흐르고 흘러도 또 새로운, 변하고 또 변해도 그대로인 시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참선이란 어쩌면 시간을 거스르는 방법이며 선(禪)이란 시간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문명(文明)의 기본구조는 시간이란 불가사의한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윤회도 넓게 보아 시간이 제기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시간은 영원의 선물이다"고 했다. 만일 인간이 시간을 초월한 신이나 혹은 전 존재(全存在)를 딱 한번에 다 파악해야 한다면 압도당해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대신 영원은 관대하게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겪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따라서 시간은 영원이 인간에게 선사한 선물이 되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시간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친 사람이다. 그는 고백록 제11권에서 그의 영혼이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불타오른다고 했다. 그는 신의 날은 날아가지 않으나 '오늘' 뿐이라고 하면서 영원으로 통하는 시간인 현재를 강조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지만 모두 정확하게 각자의 '바로 지금'에서만 일어난다고 하였다.

시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색 중 특이한 것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대신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들어 오는 시간을 발견한 점이다. 인간이 미래의 어느 시간을 의식하고 그것에 기초한 소망적 미래상

(未來像)을 그려낸다면, 그때부터 그 미래상은 현재를 의욕적이고 건설적인 창조로 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미래의 성취에 대한 강한 확신은 커다란 인력(引力)이 되어 현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고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 매몰되어 버린 화석(化石)같은 과거도 미래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쓰이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고난은 찬란한 미래를 위한 시금석(試金石)으로 변하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사색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고난의 오늘을 극복하는 힘을 주기도 한다. 또한 시간관(時間觀)은 문명이나 시대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인들처럼 그리스인들도 윤회를 믿었다. 다시 말하면, 인도인들처럼 그리스인들도 시간을 원형(圓形)으로 본 것이다. 시간은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는 시간을 직선으로 본다. 시간은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일회적(一回的)이고 직선적이며 유한(有限)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유한한 시간의 밖에 무한한 시간의 영원을 상징함으로써 유한한 시간의 모순을 해결하

고자 했다.

기독교 시간관 '일회성'

'현대(現代)'라는 이 시대의 이름은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시간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대'라는 말은 영어 모던(modern)의 번역어이다. 모던의 원래의 뜻은 '새로운'이었으며 영어의 뉴(new)와 동의어였다. 현대인인 우리들은 왜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고 있을까? 바로 우리의 시간관이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새로운 것은 곧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진보(進歩), 선진(先進), 첨단(尖端), 진화(進化), 혁명(革命) 등의 직선논리가 각광을 받고 사회에 난무하고 있다.

과거엔 부끄러움이었던 불초(不肖, 아버지를 닮지 않음)가 새로운 것에 대한 숭배로 인해 미덕으로 대접받는 시대를 살며 맹목적으로 앞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 군생들-현대인들에게 보르헤스는 불교를 인용하여 시간이란 환(幻)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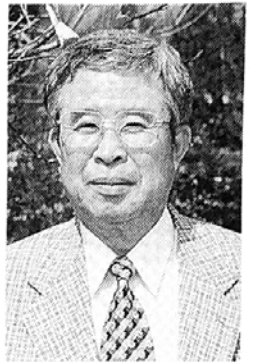


교수인 나는 새내기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새학기면 큰 책임감을 느낀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우선 대학등록금을 자기손으로 마련한 학생을 조사하고 젊은 이가 젊은이를 지도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개천에 빠지기 쉽듯이 잘못되기 쉬우니 공경한 일이나 논할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대학원 선배, 조교 그리고 선생님께 의논하라고 권한다.

'집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말을 해주고, 청년전 고려시대 야운(野雲)스님의 <자경문> 한구절을 가르쳐 준다.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여 내 좁은 소경으로 열가지 문을 마련하여 경책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이 말을 믿고 하나도 어기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노라'로 시작하여 네번째 '착한 벗 가까이 하고 싶던 벗은 멀리 하라'에 훌륭한 친구를 귀히 여기라는 대목에서 '낙락장승 큰 소나무를

안 원 영 (서울대 교수·민간방송인)



왔다. 그런데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심장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다음 사람을 위하여 연구자료가 된다면 이 심장을 떼어가지오 했고 60년을 끌고 온 몸인데 성한 곳, 즐거운 곳이 남아 있을까 생각하였다. 불교계를 비롯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자주 늘어간다고 한다. 내가 이것저것 다 떼어 주고 저승에 가 윤회의 길에 들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 온전한 몸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실까!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해인사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법고소리다. 16년전인가 맑게 개인 가을 어느날 해인

"착한 벗 가까이" 새내기들에 당부

사후 장기기증으로 인색했던 삶 사죄

타고 오르는 좁은 천 길을 공개 올라가지만 역새풀밭의 좁은 기껏 올라가야 석자를 넘지 못하니, 어질지 못한 소인들을 언제나 멀리 떨어져 피하고 싶어 고상한 사람들과는 항상 가까이 친해야 하느니라!



사 경내 한 방에서 나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법고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법고루 앞으로 가 있다. 짧은 스님 두 분이 한쪽이 되어 번갈아 가며 북을 친다. 그야말로 굉장 울리는 데 묘한 리듬과 장단의 조화가 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드디어 마음을 치더니 그야말로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해준다. 나는 법고소리가 이렇게 좋은 지는 처음 알았다.

지난 해 3월 시름 시름 뱀이 길어 영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수술받기 직전에 아예 인쇄하여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죽거든 화장하여 성역에 평장하라는 것과 여러 당부와 말을 일러둔 것이다. 그런데 발달된 현대 의학술의 덕으로 심장수술을 받고 살아났다. 내가 입원해 있던 층에는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방이 있고 방문 앞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생각난다.

당신 몸의 모든 기관을 극락으로 가져오지 마라. 극락에서는 그것이 사바세상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생각해 보면 나는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배고픈데 남 먼저 밥주어 먹게 한 적 없고, 내 돈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회사한 적도 없다. 그러고는 나도 가난하게 사는데 하며 항상 자신을 합리화시켜

다. 이후 나는 법고치는 곳에는 꽤 잦아다 너 여러 절의 여러 법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날같은 법고소리는 없었다.

꿈꿈 생각해보니 법고는 양쪽에 가족을 씌운 북이다. 이 가족은 승가에 민감하여 공기중에 승가가 많으면 가족이 흡수하여 축 늘어나니 두드러면 퍽 퍽 소리뿐 힘이 있을 리가 없다. 하루 중에 밤에는 법고의 쇠가족이 흡수하여 늘어나고, 맑게 개어 발래가 잘 마르는 그런 건조한 날에는 가족의 수분이 빠져 광광하게 된다. 그래서 그날 그 법고치는 소리가 광광 우렁차게 울리어 들는 사람의 마음까지 울린 것이 아닐까.

울 가를 청명한 날 골라 해인사에 가서 그 법고 소리를 들으며 속진이나 떨구어야겠다.

북한산 (삼각산) 노적사 오백나한 봉안

북한산(三角山) 적멸보궁

북한산『노적사』 도량 경내지에 오백나한을 모십니다.

오백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제자 중에 아라한 과를 증득한 오백성중을 말합니다.

서울의 두상과 같은 삼각산 적멸보궁의 명기어린 노적봉 산세는 『원효대사님』과 『의상대사님』께서 중성문을 두고 國運의 융성을 기도했던 기도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노적사』에서는 오백나한의 봉안불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녕과 불국정토를 앞 당기는 큰 발원을 세우고자 하오니, 청정한 신심으로 성스러운 불사에 무루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고 큰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5월

주지 석종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문의전화 : (02) 353-5016, 353-4924.

봉

축